판타지에 빠진 드라마

본 어게인·더 킹·쌍갑포차 이어 하반기에도 판타지 장르 쏟아져

더 킹:영원의 군주

힘겨운 현실 때문인가, 미지의 세계에 대한 호기심인가.

최근 안방극장에 판타지 드라마가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다양한 장르의 한 가지로 비치며 때때로 시청자 시선을 끌어왔지만 이제는 마치 '대세'로까지 비친다. 다만 일부 드라마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시청률을 기록해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현재 방송 중인 드라마는 KBS 2TV '본 어게인'을 비롯해 SBS '더 킹:영원의 군주', JTBC '쌍갑포차' 등이 있다. '본 어게인'은 두 번의 삶에 얽힌 세 남녀의 이야기를, '더 킹:영원의 군주'는 대한제국 황제와 대한민국 형사의 로맨스를 그린다. '쌍갑포차'는 신비한 포장마차를 배경으로 두 남녀가 손님들의 꿈속으로 들어가 사건을 해결하는 내용이다.

앞서 상반기에도 1월 MBC '더 게임:0시를 향하여', 3월 '365:운명을 거스르는 1년'과 KBS 2TV '어서와', 4월 tvN '하이바이, 마마!' 등이 방영됐다. 하반기에도 추세가 이어져 MBC '카이로스'를 비롯해 SBS '앨리스', tvN '구미호뎐' 등이 시청자를 만날 예정이다.

모두 시공간을 초월하고 넘나들며 다양한 소재의 이야기를 펼치는 작품들이다. 또 '어서와', '쌍갑포차' 등 일부는 이미 인기가 검증된 웹툰을 원작 삼아 또 다른 세상을 안방극장에 펼쳐놓기도 한다.

이 같은 흐름은 갖은 힘겨움을 겪고 있는 현실의 시청자를 신선한 상상의 세계로 끌어들이는 데 유효한 방식으로 통한다. 한 드라마 관계자는 "시청자들의 상상력을 자극해 현실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데 잠시나마 대리만족의 효과를 안겨줄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올해 방송한 대부분 판타지 드라마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적을 거뒀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김태희가 5년 만에 선택한 드라마 '하이바이, 마마!'와 20일 첫 방송한 '쌍갑포차'가 그나마 시청자 화제를 모았거나 모으고 있을 뿐이다. '하이바이, 마마!'의 경우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생환한 엄마와 그의 어머니, 또 이들의 딸이자 어린 손녀의 이야기를 통해 시청자에게 가 닿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태희는 "저도 엄마이니까 모성애에 공감이 가고 이해가 됐다. 엄마라면 다 똑같다"고 말했다. 이는 현실에 철저히 기반을 두고 보편적 정서를 펼쳐내는 상상력이 판타지 드라마의 유력한 '무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꼽힌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이제훈·김혜수·신민아 등 '독립예술영화관 챌린지' 동참

독립·예술영화와 관련 영화관을 응원하는 캠페인에 동참한 배우 이제훈과 김혜수, 신민아(왼쪽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작지만 단단한 영화들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사진제공 | 넷플릭스·스포츠동아DB

"용순" "한공주"…톱배우가 강추!

100일간 영화 3~4편씩 추천
이제훈 "독립영화 통해 성장"
영화 '저 산 너머' 10만 돌파

"독립영화를 통해 성장했고 지금도 제 삶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제훈)

"애정을 담아 응원합니다." (김혜수)

"하루 빨리 좋은 영화를 영화관에서 만날 수 있기를…." (신민아)

배우들이 독립·예술영화와 이들 작품을 상영하는 영화관을 독려하는 데 힘을 보태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영화계가 혹한의 시기를 보내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환경에 처한 독립·예술영화와 영화관들을 응원하자는 취지에서 자발적으로 시작한 릴레이 운동이다.

'독립예술영화관 챌린지'(#SaveOurCinema)라는 이름의 이번 캠페인은 100일간 진행한다는 목표로 이달 6일 출발했다. 초반 캠페인 확산에 힘을 보탠 주역들은 독립영화를 무대 삼아 성장한 배우들이다. '아워 바디' '박열'의 최희서가 "코로나19로 관객의 발길이 닿지 않는 전 세계의 작고 귀한 영화관들이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다"고 관심을 촉구했고, 이제훈에게 바통을 넘겼다. 이제훈 역시 독립영화가 낳은 스타다. 그는 "독립영화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깊고 넓은 시작과 생각을 일깨워주는 소중한 길잡이"라고 의미를 더했다.

누적관객 10만 명을 동원한 '저 산 너머'의 한 장면. 고 김수환 추기경의 유년기를 따뜻하게 그린 영화다. 사진제공 | 리틀빅픽처스

이들 배우는 영감을 얻은 독립·예술영화들을 3, 4편씩 추천하면서 함께 보길 권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잊혀진 작은 영화들은 물론 미처 발굴되지 못한 원석 같은 독립영화까지 두루 주목받는 새로운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배우들의 취향도 엿보인다. 김혜수는 여성이 주인공인 '미성년' '소공녀' '용순' '한공주'를 꼽았고, 뒤이어 동참한 한지민과 신민아 그리고 수지는 '우리들'과 '한공주' 등 작품을 공통적으로 추천했다.

●악조건 딛고 '잔잔한' 흥행…'저 산 너머' 10만 돌파

배우들이 이끄는 독려와 응원은 다양성영화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는 촉매제가 되고 있다. 코로나19의 집단감염 우려가 여전해 23일 기준 5월 극장 관객이 112만3576명(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그치는 등 지난해 같은 달(1806만2457명)과 비교하면 터무니없는 수준으로 추락한 '악조건'이지만, 그 어려움을 딛고 꾸준히 힘을 내는 영화들이 탄생하고 있다.

24일에는 고 김수환 추기경의 유년기를 그린 영화 '저 산 너머'가 10만 관객 돌파를 알렸다. 4월24일 개봉해 착실히 관객을 불러 모은 결과다. 올해 초 예술영화 화제작인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의 셀린 시아마 감독의 영화 '톰보이' 역시 완성도를 알아보는 관객의 선택에 힘입어 개봉 열흘째인 23일까지 2만2429명을 동원했다. 상영 중인 청각장애인 가족의 이야기인 '나는 보리', 27일 개봉하는 1세대 이주노동자의 이야기인 다큐멘터리 영화 '안녕, 미누'도 독립영화의 힘을 과시할 준비를 마쳤다. 이해리 기자 gofl1024@donga.com

원픽! 위클리 핫이슈

몬스타엑스, 내일 새 앨범 공개 7개월만의 국내활동 대박 예감

그룹 몬스타엑스(셔누·민혁·기현·형원·주헌·아이엠)가 미국 빌보드 차트에 입성한 저력을 국내 무대에서 발휘할 기세다. 이들이 26일 새 미니앨범 '판타지아 엑스'를 내놓고 7개월 만의 국내 활동에 나선다.

몬스타엑스는 2월29일 첫 영어앨범 '올 어바웃 러브'로 빌보드 메인 앨범차트인 '빌보드 200'의 5위에 올라 케이팝의 대표주자로 떠올랐다. 방탄소년단과 슈퍼엠에 이어 세 번째로 '빌보드 200'의 5위 안에 진입한 한국 가수가 됐다.

글로벌 그룹으로 도약하고 발표하는 이번 앨범에는 타이틀곡 '판타지아'를 비롯해 '카오틱', '뷰티풀 나이트' 등 총 7곡이 실렸다. 몬스타엑스의 트레이드마크인 '패기'와 '열정'을 노래에 녹여냈다. 멤버 주헌은 '플로우'와 '스탠드 업'을, 아이엠은 '존'을 각각 작곡해 앨범에 담았다. 멤버들은 발매 당일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미디어 쇼케이스에서 '판타지아 엑스'를 직접 소개한다.

허리 통증으로 그룹의 앨범 발매 시기까지 미뤄야 했던 멤버 셔누도 컴백 무대를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셔누는 14일 데뷔 5주년을 기념해 포털사이트에 공개한 영상을 통해 "허리 치료가 거의 끝나 열심히 연습하고 있다"며 완쾌 소식을 밝혔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